

층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국민에게 검진을 실시해주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건강관리협회의 기능은 국가적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 기능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정책적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홍보기능을 활성화하여 일반국민

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피보험자 97만8천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유질환율이 4~8%에 달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이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해를 맞아 건강관리협회가 국민보건증진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필자= 보건신문사 취재부장)

새해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

**개인과 사회가 함께
건강하기 위한 노력을 !**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천국에서의 행복에 대해 설교를 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신도들은 설교 내용에 감동을 받고 모두 천국에 가게 되기를 기원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신도들에게 물었다.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물론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아무리 천국이 좋기로써니 현세에서 오래 살고 싶다는 본능



송 해 영

때문이었다.

오래 살기 위한 최대, 최고의 조건은 물론 ‘건강’이다. 건강이야말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이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란 말도 있다.

인류의 탄생이래 모든 사랑들의 한결 같은 소망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었다.

많은 제왕, 군주들은 이를 위해 자신의 권세를 총동원 하기까지 했다. 또 뜻있는 많은 선각자들은 인류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삶은 모두 바치기도 했다. 그러나 인류는 지금까지도 질병과 죽음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눈부시게 발달하는 과학문명을 이용해 최신의 의료기기와 각종 약품을 개발하여 질병을 이기려 애쓰고 있지만 오히려 더욱 새롭고 강력한 힘을 가진 질병들이 속속 나타나 인류를 비웃고 있다.

어떤 면에서 현대인은 자신의 과학문명에만 도취, 질병의 위협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 특히 만성병이나 난치병들은 상당부분 사람들 스스로의 그릇된 생활태도나 습관에서 비롯되고 있다. 입에 단 음식만을 선호하는 식생활습관,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현대인은 자신의 과학문명에 도취해 질병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일상생활, 무책임한 환경오염, 각종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무력한 도피...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전체가 저지르는 여러 그릇된 행위들이 결국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염려증'에 시달려 건강하기 위한 수단들을 찾아 헤메지만 정작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알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드물다.

건강은 결코 개인적인 노력이나 힘만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 개인과 사회가 함께 건강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 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정의'를 한번 되새겨 볼 만하다.

〈필자=새건강신문사 취재부차장〉

이달의 캠페인

서로 돕는 온정속에 훈훈한 연말연시

• 한국건강관리협회 •